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배형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문 선 희(성균관대학교 강사)

I. 서론

부모가 자녀를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는가에 대한 관심은 오래되고도 매우 흥미있는 연구주제이다. 성장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가족들과의 상호작용, 특히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성격형성이나 지적발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중요한 변인이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행동양식을 통하여 사회화를 학습하며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기의 역할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에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였는가는 실제적인 현상이 자녀와 부모가 경험하는 사건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의해 서로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즉 부모의 실제행동보다 학습자인 자녀에 의해 지각되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따라 자녀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녀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때는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보다 더 중요한 변인이라 할 수 있다(조성두, 2008; Schaefer, 1965).

아동기와 청소년기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년기 자녀의 지적·정서적 발달에 여전히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청년기에 부모와의 건전한 애착은 사회적 성취능력, 정서적 적응, 자아존중감, 신체적 건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len et al., 1994). 이 시기는 부모-자녀의 관계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시기일 뿐만 아니라 진로를 위한 준비의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독립하려는 의지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태도는 청년기에 접어든 자녀에게 있어서 개인적 성취의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청년기에는 자신의 인생에 대한 중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진로를 결정하고 학업이나 직업과 관련하여 미래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은 앞으로의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대학생은 청소년 후기 혹은 초기 성인기에 해당하는 시기로서 중·고등학교 시기인 초기 청소년기와는 달리 정서적·정신적인 면에서는 안정되는 경향이 있다(남상철·유영달, 2007). 하지만 이 시기는 또한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단계로서 진로의 결정과 동시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여전히 경험할 뿐만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가치의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혼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대학생 시기는 모든 영역에서 반드시 부모로

부터 완전한 독립과 자율성을 획득하기보다는 부모와 안정된 애착관계를 여전히 유지하는 시기일 수 있다. 즉 진로나 배우자 선택과 같이 의사결정이 어려운 분야에서는 부모로부터 계속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는 대학생보다는 주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되어 왔다. 이는 한국 가정과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 갖는 높은 교육적 기대가 중·고등학생에게 집중되어 있으며, 대학에 진학한 후로는 상대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줄어드는 때문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인생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시기는 대학생이 된 이후라 할 수 있다.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학교를 다니는 동안 입시 위주의 교육과 평가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 정체감을 가지고 진로에 대해 구체적으로 계획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시기이다. 때문에 대학생의 학업성적은 결국 자신이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가는 본인의 자아실현과도 직접 관련이 있을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진로 결정을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또한 최근 언론의 보도에서도 보듯이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장래문제를 포함한 진로 및 직업선택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경향신문, 2012. 10.5) 대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고민은 더욱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때문에 학업성취도와 더불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자신감을 갖는 것은 본인의 능력을 직업과 연결시키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인식에 근거하여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대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의 지배적 양육태도가 그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경로를 탐색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부모의 지배적 양육태도는 남·녀 대학생의 학업성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개인의 자아분화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의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가정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 사이를 매개하는지의 여부를 밝히는 것이 두 번째 연구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에서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담자와 자녀의 진로결정에 조언자로서 참가하는 부모를 위한 효율적이고 적절한 진로지도와 진로상담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고자 하는데 최종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도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녀를 양육하는 태도는 부모의 개인적인 특성과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Baumrind(1968)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권위형(authoritative), 독재 또는 지배형(authoritarian), 허용형(permissive)으로 범주화하고 권위를 나타내는 양육태도의 특징으로 사랑, 통제 대화 등을, 독재 또는 지배형 양육태도는 엄격한 처벌과 자녀와의 분리, 냉담함, 허용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신체적,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사랑과 수용적인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 이현숙과 조한익(2004)은 대학생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를 수용적, 거부적,

자율적, 통제적으로 나누어, 이러한 양육태도가 성취목표와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가 수용적이거나 자율적이라고 인식할 때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높아지고, 거부적이거나 통제적이라고 인식할수록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업성취도가 수용적이라고 지각하는 학생들에 비해 더 낮게 나타나는 것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정갑순, 2002). 즉 엄격하고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다. 지나치게 통제적인 부모에게서 양육되는 자녀는 부모와의 의사소통 방식에서도 분리를 경험할 확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개인의 발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듯 한국사회에서 부모-자녀 관계와 학업성취도와의 관련성은 아주 밀접한 것으로 밝혀져 왔다. 한국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취도가 높은 경험은 학업성취도이며(박영신 외, 2004), 이렇게 높은 학업성취 경험을 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이며, 미래의 성공을 위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모두 부모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박영신·김의철, 2000). 이렇듯 부모의 역할과 양육태도는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2. 자아분화·진로결정효능감과 학업성취도

청소년 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은 개인적 가치와 목표를 설정하고 정체감을 확립해야 하며 동시에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함께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대학생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취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적 부조화, 정서적 갈등 및 심리적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이미경, 2004). 이렇듯 진로에 대한 고민과 결정은 대학생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문제이며, 진로결정에 대한 연구 및 진로상담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필요에 비해 오늘날 부모로부터 심리적으로 독립하여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미래를 준비하려는 한국의 대학생들은 그리 많지 않다. 때문에 한 개인이 부모로부터 정서적으로 얼마나 분리된 사고를 하고 있는지는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개인의 자아분화수준이 부모의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학업성취를 매개하는 변인중 하나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선행연구들은 학생의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생의 자아분화수준과 함께 학습능력과도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미경, 2010; 김진영, 2012; 이은주, 2001). 또한 임성택 외(2012)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주도적 학업성취능력에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청소년의 자아분화수준에 의해 매개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혀내었다.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 시기는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관을 확립하고 성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배우는 시기로 정의되고 있으나(Erickson, 1967; 송명자, 2006 재인용), 동시에 사회속에서 자신의 독립적인 역할과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정은희(1993)의 연구는 후기 청소년기를 부모로부터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는 시기로 정의하고 독립심이 더 많은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할 것을 예측하였으나 전혀 다른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즉 부모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부모와 비슷하고 부모로부터 도움과 조언을 많이 받고 있는 대학생일수록 학교생활에 더 적극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곧 한국의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독립된 개체로서 성인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보다는 학업을 비롯한 학교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 개인의 자아분화는 부모를 비롯한 주변의 의미있는 타인들로부터 독립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을 의미한다. 결국 스스로 성취해 내는 학업정도라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추론할 수 있으며 동시에 부모의 양육태도에 대한 개인의 반응과도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사고와 정서가 분리되지 않아 부모와 융합의 정도가 높은 사람은 이성적 사고가 아닌 감정을 토대로 하여 반응하고 의사결정을 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떤가에 따라서 감정적으로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동시에 개인의 성취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설정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성취도를 매개하는 두 번째 중요한 변인은 진로결정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가정하고 있다. Hackett와 Betz(1981; 조형래, 2011 재인용)는 자기효능감이 인간행위와 관련된 다양한 심리적 변인을 설명하고 예측하는데 유용하다는 사실에 관심을 가지고 자기효능감 이론을 진로와 직업분야에 적용하였다. 진로선택과 적응에 관련되는 개인적 효능감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 되었으며, 진로결정과 학업성취, 진로결정 의사 및 행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설명되고 있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행동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자기효능감을 토대로 하여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행동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에서 출발한다(김남순·배종훈, 1998). 이현숙과 조한익(2004)은 대학생 자녀들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취목표와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통제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며 진로를 결정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성취목표 또한 낮았다. 부모-자녀 관계와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의 적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한 연구(최은실, 2001)에 의하면, 대학생활 적응요인중 하위요인인 학업적 적응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혀낸 바 있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적응의 관련성을 연구한 Chartrand 외(1992)는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더 좋은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 학업수행에 더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학업동기 또한 높다는 것을 보고하고 있다.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학업성취의 예측변인임을 확인하고 있었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학업적 동기가 높을수록 더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학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Zhicheng & Stephen, 1999).

또한 부모와의 관계는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은 성역할 사회화와 관련한 문화적 풍토에 따라 다르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유은희, 1991) 자녀의 발달성취도는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컨대, 전통적인 성역할 이론에 의하면 여성은 애착적인 성향이 강하며 남성은 자율적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다(Chodorow, 1978). 성역할에 대한 이러한 이분법적 개념화는 현대사회에 들어와 점차 쇠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부모-자녀간의 전통적인 의사소통방식이 여전히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라 부모의 양육태도가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지를 규명하는 것은 의미있는 시도일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의 지배적인 양육태도가 자녀의 학업성취도에 대한 경로과정을 남·여 대학생으로 구분하여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기분화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경로를 통해 학업성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조사의 표집은 2012년 9월과 10월에 걸쳐 서울지역 4년제 남녀공학 대학 두 곳에 다니는 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자의 성별과 학년분포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설문지의 회수 결과 불성실하게 기재된 17부를 제외한 283부의 설문지가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 283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성별은 남학생이 58%, 여학생이 42%로 나타났으며 2학년의 비율이 36.1%로 가장 높고 1학년이 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부모님의 교육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대학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0% 이상의 대학생이 자신의 가정경제상태를 중간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빈도(%)
성별	
남자	164(58%)
여자	119(42%)
학년	
1학년	48(17%)
2학년	102(36.1%)
3학년	54(19%)
4학년	79(27.9%)
부모의 교육정도(아버지/어머니)	
중학교 졸업 이하	215(7.5%) / 23(8.1%)
고등학교	87(30.8%) / 121(42.8%)
전문대학	26(9.3%) / 19(6.8%)
대학교	92(32.5%) / 100(35.3%)
대학원 졸업 이상	573(20.1%) / 20(7.1%)
경제수준	
상	36(12.7%)
중	202(71.4%)
하	45(15.9%)

2. 측정도구

먼저 본 연구에서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조사하기 위한 평가도구로 양육스타일 척도(PSDQ: Parenting style and Dimensions Questionnaire)를 사용하였다. Baumrind(1967)의 세 가지 양육태도인 권위형(Authoritative), 지배형(Authoritarian), 방임형(Permissive)를 기초로 32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PSDQ는, 고인숙 외 3명이 한국의 상황에 맞추어 31문항으로 수정·번안한 것이다(이숙희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양육스타일 하위 척도 중 하나인 지배형 양육태도에 대한 척도를 선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신뢰도는 .794이었다. 지배형 양육태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적, 언어적 위협과 비합리적인 처벌의 양육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변인인 자아분화 척도는 제석봉(1989)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각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상 반대의 의미를 가지는 항목은 역코딩한 뒤 각 항목을 합산한 변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자아분화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77로 계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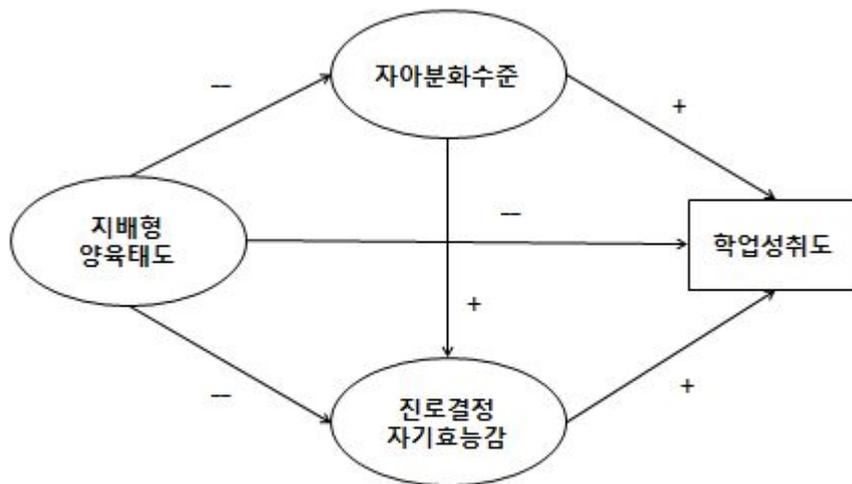
세 번째 변인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Taylor와 Betz(1983)가 개발한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Scale 단축형(CDMSES-SF)을 이은경(2000)이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CDMSES-SF는 효과적인 진로결정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과제들에 대해 이를 완수할 수 있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이은경, 2000). 리커트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별로 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조금 그렇다, 5=아주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25개의 과제에 대한 자신감 정도를 4개의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다.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목표선택 .856, 직업정보 .803, 문제해결능력 .692, 미래에 대한 계획 .742로 나타났다. 전체 25개 항목에 대한 신뢰도 계수는 .921이었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한편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대학생의 학업성취도 변인은 지난 학기에 받은 학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연구모형과 분석방법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자아분화 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추정하였다. 각 변인들간의 관계는 <그림 1>의 연구모형에 나타나 있다. 이 연구모형에 기초하여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첫째, 남·녀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지배적 양육태도는 그들의 학업성취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둘째, 자아분화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남·녀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지배적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간을 매개하는 효과가 있는가?

분석에 사용될 잠재변인들이 연구모형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에 앞서 36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자아분화 수준 변인을 하위 항목으로 군집화하기 위한 문항 분할(item parceling)을 요인분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문항 분할의 결과 자아분화 수준 변인은 요인점수에 따라 다섯 개의 하위항목으로 그룹을 나누었으며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의 하위변인으로 사용하였다. 지

배형 양육태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은 이미 항목의 내용에 따라 이미 그룹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문항분할의 과정이 없이 하위변인으로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잠재변수에 사용된 하위변인의 요인계수를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한 후 이를 구조모형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잠재변인 간 경로계수를 산출하였다. 한편 자아분화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이 지각된 지배형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를 알아보려고 붓스트랩 검증을 실시하여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확인하였다.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과 AMOS 7.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잠재변인들의 상관관계

잠재변인인 지배형 양육태도와 대학생이 느끼는 자아분화 수준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그리고 종속변인인 학업성취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결과를 보면 진로결정 효능감과 지배형 양육태도간의 상관관계를 제외한 다른 변인들은 서로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 대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의 지배형 양육태도는 학업성취도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r = -.248, p < .001$), 자아분화 수준과 진로결정 효능감은 각각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r = .336, p < .001$; $r = .262, p < .001$). 즉 부모가 지배형 양육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자아분화의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 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학업성취도는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표 2> 잠재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

	1	2	3	4
1. 지배형 양육태도	-			
2. 자아분화 수준	-.378***	-		
3. 진로결정 효능감	-.027	.408***	-	
4. 학업성취도	-.248***	.336***	.262***	-
평균	2.435	3.396	3.493	3.553
(SD)	(.527)	(.305)	(.513)	(.549)

***p<.001

2. 연구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ing) 검증

먼저 분석을 위해 설정된 잠재변수들이 연구모형에 사용하기에 적합한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자아분화수준의 하위변인 한 개를 제외한 다른 잠재변수들의 하위변인들의 요인값은 모두 .3 이상으로 연구모형의 변인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함을 보여주었다(Kline, 2005). 모형의 수정결과 $\chi^2=41.905(26)$, GFI=.974, CFI=.989, NFI=.973, TLI=.977, RMSEA=.047으로 본 연구를 위한 구조모형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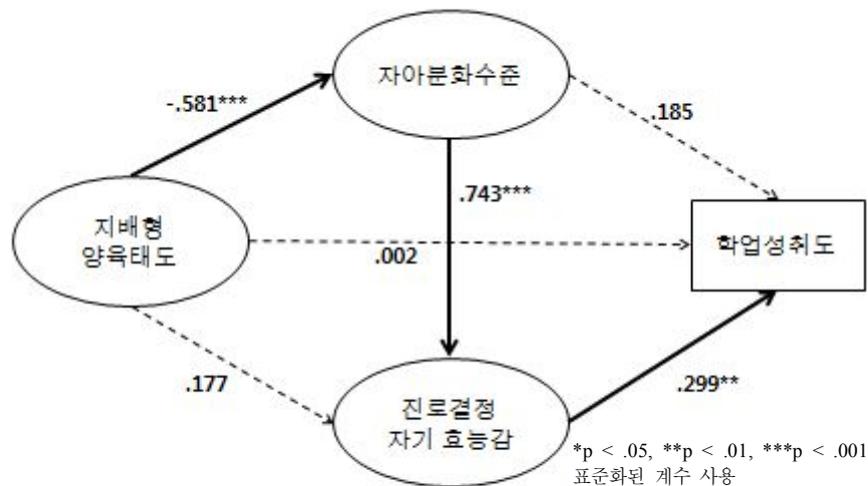
다음 단계로서 지배형 양육태도와 대학생의 학업성취도간의 경로를 분석하고 자아분화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밝히기 위해 연구모형을 이용해 자료를 분석하였다. 남학생의 구조모형분석의 결과는 <표 3>, <표 4>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구조방정식 이론에 따른 모형의 수정 후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GFI는 .969, CFI는 .995, NFI는 .974, TLI는 .988로서 모두 .95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으며 RMSEA는 .038로서 .5 이하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지배형 양육방식과 학업성취도간의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남학생의 경우 지배형 양육태도는 자아분화수준에 대해 $-.581(p<.001)$, 자아분화수준은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대해 $.743(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에 대해 $.299(p<.01)$ 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배형으로 지각할수록 자아분화수준은 낮았으며,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자신감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형 양육태도가 자아분화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부스트랩 검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부스트랩 검증결과 자아분화수준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표준화 간접효과는 $.222(p<.01)$, 지배형 양육방식이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표준화 간접효과는 $-.431(p<.01)$ 로서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표 4> 참조). 즉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배형으로 인식할 때 남자 대학생의 자아분화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하여 학업성취도에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분화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의 매개효

과를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모형적합도(남학생)

	$\chi^2(df)$	GFI	CFI	NFI	TLI	RMSEA
기본모형	302.150(39)	.785	.750	.727	.647	.203
수정모형	28.463(33)	.969	.995	.974	.988	.038



<그림 2> 지배형 양육태도,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학업성취도에 대한 경로모델(남학생)

<표 4> 지배형 양육태도,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학업성취도에 대한 경로모델의 직접·간접·총효과 (남학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지배형 양육태도 → 자아분화	-.581 ***	-	-.581
자아분화 →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743 ***	-	.743
지배형 양육태도 →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177	-.431 **	-.254
자아분화 → 학업성취도	.285	.222 **	.407
지배형 양육태도 → 학업성취도	.002	-.183	-.181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 학업성취도	.299 **	-	.2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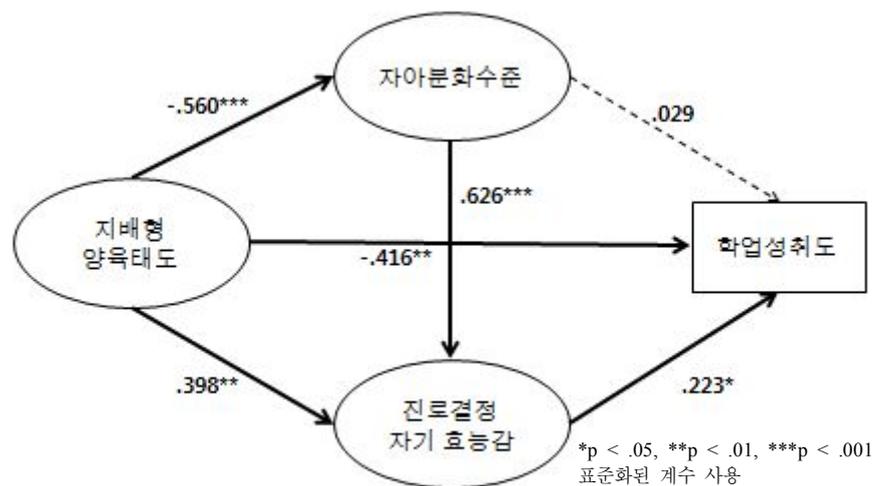
p<.01** p<.001***

한편, 여학생의 구조모형분석의 결과는 <표 5>, <표 6>과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구조방정식 이론에 따른 모형 수정 후 후 적합 후 적합도 지수는 GFI는 .983, CFI는 .936, NFI는 .928, TLI는 .974로서 모두 .90~1의 범위에서 값을 가지고 있으며 RMSEA는 .042로서 대체로 만족스러운 수준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는 설정된 구조모형이 자료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수정된 모형을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구체적인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여학생의 경우 지배형 양육태도는 자아분화수준에 $-.560(p<.001)$, 학업성취도에 $-.416(p<.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398(p<.01)$, 자아분화수준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626(p<.00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학업성취도에 대하여 $.223(p<.05)$ 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이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배형으로 인식할수록 자아분화수준과 학업성취도는 낮았으나 진로결정에 대한 자신감은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아분화수준이 높을수록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났으며 궁극적으로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표 5> 모형적합도 (여학생)

	$X^2(df)$	GFI	CFI	NFI	TLI	RMSEA
기본모형	79.194(39)	.893	.931	.875	.902	.093
수정모형	46.008(36)	.983	.936	.928	.974	.049



<표 6> 지배형 양육태도,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학업성취도에 대한 경로모델(여학생)

<표 6> 지배형 양육태도, 자아분화,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학업성취도에 대한 경로모델의 직접·간접·총효과 (여학생)

경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지배형 양육태도→자아분화	$-.560^{***}$	-	$-.560$
자아분화→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626^{***}$	-	$.626$
지배형 양육태도→진로결정 자기 효능감	$.398^{**}$	$-.351^*$	$.047$
자아분화→학업성취도	$.029$	$.139$	$.169$
지배형 양육태도→학업성취도	$-.416^{**}$	$-.006$	$-.422$
진로결정 자기 효능감→학업성취도	$.223^*$	-	$.223$

$p<.05^*$ $p<.01^{**}$ $p<.001^{***}$

여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배형 양육태도가 자아분화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해 학업성취도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붓스트랩 검증결과, <표 6>에 제시되어 있듯이 지배형 양육방식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표준화 간접효과는 $-.351(p<.05)$ 로서 유의수준 95%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여학생이 인식하고 있는 지배형 양육태도가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beta=-.416, p<.01$) 본 연구의 가설로서 설정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의 매개효과는 남학생보다는 작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남학생과는 달리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배형으로 더 인식할수록 현재의 학업성취도는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배형으로 인식하고 있더라도 진로를 결정하는데 대한 자신감이 높은 여학생은 학업성취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지배적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탐색하고, 자아분화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283명의 남·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배적이고 권위적으로 인식할 때 대학생의 학업 성취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남학생의 경우 자아분화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인에 의해 매개되는 경로를 보여주었다. 여학생의 경우 부모의 양육태도를 지배적으로 인식할수록 학업성취도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매개변인으로서 전체 경로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점과 추후 연구방향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통제적이고 권위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발달시기에 따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에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는 극심한 교육열과 한국의 전통적인 자녀양육방식의 결합으로 인해 자녀를 통제하는 경향이 강하며 권위적인 양육태도를 견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지배적 양육태도는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의 학업성취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는 있으나(박영신·김의철, 2000, 2003), 초기 성인기에 접어든 대학생에게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궁극적으로 지배적 양육태도는 효과적인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며 개인적 성취에 역기능적으로 반응하게 될 것이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성인자녀의 긍정적 발달을 위해 수평적 양육태도를 통한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지배적인 양육태도가 여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는 같은 발달시기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간의 관계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더 독립적인 경향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는 전통적인 성역할의 개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미래의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진로설정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여학생의 경우, 진로설정과 관련한 준비과정이 단순히 여성 자신만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기 보다는 그 시대의 사회문화적인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학생의 진로상담과 관련해서는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남학생에게는 자아분화 수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여학생에게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애정과 자율적인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와 정적인 관련성을 가지며 지나치게 통제적인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에 있다고 밝힌 조성두(2008)의 연구결과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개인의 자아분화 수준은 학업성취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역할을 하는 변인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대학생에게 있어서 학업성취도는 자신의 진로를 설계하는 것보다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정서적 성숙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을 위한 진로상담에서 꼭 필요한 분야로서 자아분화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자아분화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은 동시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이다. 하지만 가정이나 사회에서 요구하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성인의 역할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의 현실, 불투명한 취업시장으로 인해 그들이 느끼는 불안감 등을 고려할 때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때문에 현재 한국의 대학생들이 처한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진로결정 효능감을 높이는 교육프로그램과 함께 그들을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대생들이 경험하는 진로스트레스와 장벽이 남학생의 경우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임선희·전혜영, 2004). 여학생과는 달리 남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학생보다는 진로에 대한 자신감이 학업성적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여학생들은 사회적 불평등, 편견 등으로 인해 자신감이 부족하거나 적극적인 진로탐색을 위한 동기의 결여와 같은 심리적인 진로장벽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이숙정·유지현, 2009), 내적 통제력을 향상시키고 자기 자신감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도는 대학에서 효과적인 진로상담을 위해 더욱 중요하다. 대학차원에서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상담 프로그램은 자기효능감과 자율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경향신문,(2012.10.5) 창간 66주년 특집, “가장 큰 고민거리는 취업 등 일자리”,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10052151515&code=910110
 김남순·배종훈(1998). 진로 자기효능감의 이론적 고찰. **중등교육연구**, 10, 377-400.
 김미경(2010).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진영(201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아분화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상철·유영달(2007). 부모와 자녀의 양육태도 지각 및 대학생의 자아분화가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2(2), 51-75.

- 박경환(2011). 직장인의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와 자아분화가 핵심자기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30(1), 243-264.
- 박영신·김의철(2000). 부모자녀관계 변화가 대학생에게 미치는 영향: 초 중 고 대학생의 성취 동기, 생활만족도, 학업성취, 일탈행동을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38(2), 109-146.
- 박영신·김의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 및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 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 연구**, 10(1), 139-169.
- 박영신·김의철·정갑순(2004). 한국 청소년의 부모자녀 관계와 성취에 대한 종단연구: 자기효능감과 성취동기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3), 37-59.
- 송명자(2006). 발달심리학. 학지사.
- 유은희(1991). 성인자녀-부모의 정서적 유대와 가족생활 변화의 적응. **여성연구**, 91, 111-144.
- 이미경(2004).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와 진로자기효능감에 관한 연구. 한일장신대학교 아시아 태평양국제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정·유지현(2009). 여대생이 인식한 자기결정성이 진로스트레스와 진로장벽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48(2), 35-63.
- 이숙희·고인숙·심정선(2009). 부모가 지각한 원가족과 부모의 양육스타일 및 세대 간 전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14(2), 111-134.
- 이은경(2000). 자기효능감이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주(2001). 청소년이 지각한 자아분화수준과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숙·조한익(2004). 지각된 부모의 양육태도가 성취목표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대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16(1), 89-105.
- 임선희·전혜영(2004). 여자대학생의 직업세계 이행과 진로장벽: 지역대학의 사례. **한국교육사회학연구**, 14(1), 101-120.
- 임성택·이영민·어성민(2012).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관계: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9(1), 69-87.
- 정갑순(2002). 부모-자녀관계와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학업성취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적 분석.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은희(1993).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대학생활적응과의 상관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제석봉(1989). 자아분화와 역기능적 행동과의 관계-Bowen의 가족체계이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성두(2008). 원가족 역동이 성인기 조직 내 갈등관리양식에 미치는 영향: 자아분화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형래(2011). 진로교육 운영방법이 대학생의 진로태도 및 진로능력과 자기효능감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실 (2001), 애착과 일반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llen, J. P., Bell, K. L., & Boykin, K. A.(1994). *Autonomy and relatedness in adolescent-mother*

- interactions and social functioning with peers.*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on Adolescence. San Diego, CA.
- Baumrind, D.(1968). Parental disciplinary patterns and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Youth & Society*, 9(3), 239-176.
- Chartrand, J. M., Rose, M. L., Marmarosh, C., & Caldwell, S.(1992). Peeling back the onion: personality, problem solving, and career decision-making style correlates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1(1), 66-82.
- Chodorow, N.(1978). *Psychoanalysis and sociology of gende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erkely: CA.
- Erikson, E. H.(1967). *Childhood and Society*, W. W. Nott on & Co.:NY.
- Hackette, G., & Betz, N. E.(1981). A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Theoretical Behavior*. 18, 326-339.
- Kline, R. B.(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New York: NY.
- Schaefer, E. S.(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An inventory. *Child Development*. 36(2), 413-424.
- Zhicheng, Z., & Stephen, R. R.(1999). *Freshman academic achievemen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Montreal, Quebec, Canada, April 19-23.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지배형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의 구조적 관계

임 지 영(경북대학교 교수)

본 연구는 전형(?)적인 청소년 연구에도 또는 중년기 연구 등으로 대표되는 성인 연구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간과되어온 청년기 혹은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학업성취도간의 관계를 본 연구이다. 외국(주로 미국)에서는 'Sophomore Psychology(외국의 경우, 연구윤리 심사 및 대상선정의 편의성 때문에 대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많은 심리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어 오고 있어 이 특정대상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성인 전체에게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서 나온 용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상당히 많이 수행되어 오고 있지만 국내 가정학 분야의 연구에서 대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시기의 특성상 전형적인 청소년 분야의 연구에서도 성인 연구 분야에서도 누락되어온 연구 대상이었다.

청소년기는 생물학적으로 시작하여 문화적으로 끝난다(Santrock, 2012)는 말이 있다. 이러한 말은 청소년기의 시작점에 있어서는 시대나 문화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합의된 지표가 있지만, 청소년기의 도착점에 있어서는 시대나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연구자들이 청소년기의 시작점으로 사춘기를 보는 것에는 어느 정도 동의하지만, 청소년기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19세 전후부터 20대 중후반까지의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내의 한 시점을 보고 있다. 특히 대학생 시기, 즉 20대 초반은 학자에 따라 청소년 후기로 보기도 하고 청년기라고 명명하기도 하며, 심지어 성인기라고도 지칭하여왔다. 하지만 Jeffrey Arnett 이 청소년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이들을 위해 성인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개념을 도입한 후부터 과도기적 시기에 해당하는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들을 이 시기로 규명하는데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기 혹은 성인진입기(청년기는 연령 범위가 상대적으로 모호하므로 이하 성인진입기로 통일한다)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의 궁극적인 과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보는 것은 본 연구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와 연결시키면서 본고에서 간단하게 먼저 논의해보고자 한다.

성인진입기에 속하는 대학생의 중요한 과업, 그 중에서도 가족과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가 근원가족과의 connectedness(연결성)을 유지하면서 Autonomy(자율성)을 획득하는 것에 있다고 주장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접근방식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하겠다. 청소년기나 아동기에 비해 부모의 양육태도를 대학생의 특성과 연결시켜 본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성인진입기의 대학생이 아직은 청소년기의 속성을 많이 보유한 채 성인기로 이동 중이라는 점에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자아 분화정도를 동시에 고려한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접근 방식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종속 변수 선택에 있어 본 토론자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진로 준비 및 결정을 이 시기의 또 다른 주요 목표로 보고, 오늘날 우리나라의 많은 대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불확실해 한다고 주장하면서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과 관련하여 미래의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정작 본 연구의 주된 종속변수는 학업성취도이다. 물론 학업성취도가 진로 선택이나 인생 설계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사회과학분야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변수가 얼마나 되겠는가? 게다가 학업성취도라는 종속변수의 선택은 전반적인 연구의 필요성이나 목적과는 상관없는 다소 뜬금없는 선택이었다. 이에 본 연구의 논리적인 흐름을 방해하고 독자로 하여금 혼돈스럽게 만들어 버렸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는 중, 고등학교까지도 ‘성적, 성적, 성적’이라고 하는데, 심지어 대학에서까지 성적을 성공적 적응의 주요 지표로 삼는 것에 본 토론자는 사실 동의할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유례없는 실업률로 인해 안정적인 취업을 위하여 spec쌓기에 급급하고 있고, 그들은 이미 입학 전 대학 학과 선택 시부터 직업과 관련하여 충분히 고민하였고 재학 중에는 직업과 관련하여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에 조용하여 대학생들은 자신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하는 것보다는 교수에게 받는 각 과목의 성적에만 지나치게 매달린다. 대학은 직업세계에서 올바른 윤리관을 갖고 책임을 다하도록 기본소양을 준비시키는 곳이지 특정 직업과 관련된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기술교육의 장소는 아니다. 게다가 현 세대를 본다면, 대학교 시절의 학업성적은 대부분의 학과에서 본인의 직업을 결정짓는데 있어 아주 중요한 변수는 아니다. 실제로 몇몇 전공을 제외하고는 본인의 전공을 그대로 살려 취업을 하는 대학생의 수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직업성취와 관련된 좋은 proxy(대리) 변수도 될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른 지표를 통해 성인진입기 대학생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변수 선정과 관련하여 종속변수에 대한 언급은 앞에서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고, 전체 모델에 포함된 변수에 대해 조금 더 첨언하고자 한다. 연구자도 본 토론자도 성인진입기의 대학생들이 부모나 가족으로부터 완전한 독립만을 추구하기보다 안정된 애착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동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모델보다는 부모의 특정 양육태도(본 연구에서는 지배형 양육태도)가 성인진입기 자녀의 심리적·행동적 특성(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였으나 본 토론자는 추후 연구자가 다른 지표로 대체하기를 앞에서 제안했다)과의 관계에 있어 자율성과 연결성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즉, 부모의

특정 양육태도는 어떻게 자율성과 연결성에 영향을 미쳐 성인진입기에 도달한 대학생 자녀의 특성에 영향을 주는가? 를 살펴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본 토론자의 제안 일뿐이고 이 점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좀 더 고민해 보시기를 요청 드린다.

셋째, 앞에서 본 토론자는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를 대학생의 특성변수와 관련지어 보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연구라고 하였다. 그런데 사용된 양육태도 척도에 있어 의문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숙희 외(2009)에 의해 수정·번안된 PSDQ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숙희 외(2009)의 연구는 유아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므로 사용된 척도를 대학생에게 사용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것이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 해석과 관련하여 논의해 보고자 한다. 이는 본 토론자가 처음에 제기한 문제로 다시 이어지는데, 즉 학업성취도를 진로결정과 매우 밀접한 변수로 상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학업성취도를 최종 종속변수로 두면서 생긴 문제이다. 실제 구조방정식 결과와 논의를 연결시켜 따라 읽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는 실제 논의는 진로선택이나 대학생 그중에서도 여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관련된 논의가 주를 이루면서 관련된 분석결과내용은 학업성취도와 연결시켜야 하는 모순에서 비롯된 것 같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처음부터 적절하지 못한 종속변수의 설정으로 독자로 하여금 연구자의 논리를 따라가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 또한 논의에서 ‘*부모의 지배적인 양육태도가 여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결과는 같은 발달시기를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의 관계에서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더 독립적인 경향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는 부분은 본 연구자의 연구결과에서 직접적으로 유추하기에는 다소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본 연구자는 여러 양육태도 중 지배형의 양육태도는 남학생의 심리적·행동적 특성에 훨씬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학업성취도를 제외하고는 중요한 심리적 변수인 자아분화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있어 남학생의 경우 총효과의 절대값이 여학생보다 높았다(학업성취도와의 관계는 여학생의 경우 높았지만, 앞에서도 누차 강조하였듯이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특성 변수로 학업성취도 보다는 자아분화 정도나 진로결정 효능감이 더 적절하다고 본 토론자는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는 Brian K. Barber(2001)의 연구물들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는다. 그에 따르면 지배형 양육태도의 주요 지표 중 하나와 유사한 심리적 통제 즉, ‘intrusiveness’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여러 심리적·정서적 특성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경우 일관적으로 높다. 즉, 남아의 심리적 특성은 여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심리적 독립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를 훼손하는 intrusive 혹은 통제적 양육태도는 훨씬 더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배경에 근거하여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전반적인 논의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그 외 잡다한 본 토론자의 생각은 토론장에서 시간이 허락한다면 풀어내고자 한다.